

# 인도그림기행

12 그림·글 이호신

## 숭고한 믿음, 초절한 기원의 '끝' 흔적

현실과 문화유산 사이에서  
(뉴델리 국립박물관 안팎)



◁제발 도와주세요(64×96cm).

인도의 수도 뉴델리의 하늘. 그 하늘 아래 대지위의 풍광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지러운 파장으로 번져간다. 고대와 현대의 공존, 유산과 현실의 간극이 극명한 실체감으로 나그네에게도 엄습한다.

고대왕조의 흥망, 13세기 중앙아시아에서 남하한 이슬람정권, 그리고 무굴제국의 성세, 20세기 영국에 의한 식민지 본부의 도시.

그 흔적은 곳곳에서 병풍처럼 늘어선 중세의 성탑 형상에서 살피고 코노트 플레이스(Connaught Place), 즉 영국인에 의해 설계된 도시계획은 식민지 델리의 역사를 또 다시 바꾸어 놓았다. 방사선 형태의 도로와 주요 건물의 집산은 지도만 보아도 등근 광장 중심으로 빨리 들어가고 내뿜어져 나오는 만다라식 공간구조로 펼쳐져 있다.

그 지도의 중심 광장에서 처는 남쪽으로 직선으로 내달아 국립박물관 인근에 멈추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앞으로 몰려드는 걸인들.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내밀고 "기부미 머니, 기부미 머니"를 외쳐대니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가 예전 미군들에게 "헬로우 헬로우" 해왔던 사정이 차마 저러했을까.

인정사정 보지 말라는 경험자들의 충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 뒤 가리지 못하는 동행들은 벌써 뚱뚱, 볼레 등이 손에 들려있다. 간난이이를 껴안고 있는 여자, 악기를 앞뒤로 둘러싼 소년의 절구어린 외침. 땀을 흐르는 맨발의 소녀가 강퍽을 찬 어린 동생을 껴안고 손을 내미는 상황이라니.

실로 난감한 현실을 겨우겨우 뚫고 박물관에 이르니 일행 중 자랑스런 호도관광(?)의 노인들 중에는 난생처음 박물관 문턱을 밟아보는 사연인즉, 조국의 국립박물관 경험없이 남의 나라 문화유산을 먼저 접하는 경우이다. 다 이것이 시절 좋은 지구촌 시대이려니. 하지만 자꾸만 헛갈리는 여행길에선 그저 '인연' 하나로 세상일을 긍정, 위안 삼는 얼굴빛이 역력하다.

언제나 삶과 영감의 흙먼지를 덮고 있는 선사 시대의 유적들. 기원전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는 인더스문명의 자취. 간다라 불상과 힌두 사원의 조각과 신상들이 숨막히게 즐비하니 화첩을 든 손은 땀에 젖어 자꾸 미끄러만진다.

특히 초기 불교 발상지답게 불교조각의 풍부한 형식과 내용을 보여주는, 붓다의 전생과 탄생설화, 그리고 불상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불두(佛頭), 간다라 출토의 불전도 조

### 델리의 만다라식 구조는 아픈 역사 대변 조각의 형식·내용, 불상의 변천사 한눈에

각의 뛰어난 구성과 솜씨는 실로 호흡을 멈추게 한다.

저 무명으로 남은 장인들의 숨결과 영혼이 인류의 유산으로 남겨진 까닭은 무엇일까. 숭고한 믿음, 경의를 넘어선 초절한 기원은 결코 강제가 아닌 집단의 정신과 결속의 저력이 하나하나 끝을 낸 흔적으로 전율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꽃이 피고 지듯 써왔으로 남긴 인류의 서원, 그 향기가 시간을 거스르는 길이요, 삶의 추구와 대 궁정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로서 빛난다.

특히 여러 신상(神像)의 나리답게 빛어진 예로터한 신상들의 자태는 눈요기를 더해 주는데 12세기 남부 인도 출토의 '춤추는 시바신상'은 더욱 이채롭다. 활활 타오르는 등근 불꽃 원속에서 4개의 팔을 흔들는 가녀린 손길은 나래지며 가이었고, 요염한 자태에 한발 올든 동체는 청동조각에 생명을 투사한 솜씨로 빛난다. 그 부드러운 발걸음 지극히 악귀를 누르고 선 모습은 나비 날개처럼 뻗힌 머리 장식만큼이나 우화적이며 장식적이다. 엄숙한 신상이라기보다는 장식과 공예 요소가 짙은 작품으로 다가 오는 것이다. 사실 신상은 때때로 우리를 위해 춤추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빛과 꽃향기를 조건없이 전해 주듯이, 한편 벽화의 이미지를 축소한 세밀회화의 색채와 치밀함은 누구든 잃어버린 시력의 회복을 영원하게 한다.

이렇게 손살같이 박물관 기행이 끝나자 모두들 먹먹한 표정, 꿀떡은 뱉어처럼 쉼 눈만 꿈벅이니 다들 거대한 '유산 항아리의 술'에 취한 낮빛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 중식을 위해 모여서 차를 타러는데 아까 보았던 걸인들 모두가 두서너 시간을 뽐뽐없이 우리 일행들을 기다리며 출입문에 서성거리며 서 있지 않는가.

한 푼의 동냥을 위해 끝끝내 기다려야 하는 저 존재의 처연함. 달라드는 기세는 더욱 필사적인데 한 소녀의 눈빛은 애원을 넘어 마치 구원을 청하는 애절함으로 사람의 심연을 흔들었다.



◁춤추는 시바신(32×29cm).

도리 없이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자 소녀는 미소 띠며 성호를 긋고 마침내는 합장을 하더니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마저 흔들여주는 게 아닌가.

결국 나그네의 마음뭉에는 방금 전 과거의 유산 그림자가 어리고 현실의 감회가 파문을 그리며 함께 흔들린다. 하지만 무엇이 '가치'이고 '진실'한 살인기를 따지기엔 아직은 너무 모자라고 또 여행중이지 않은가. 결국 가슴에 함께 새기고 묻어야하는 명백한 존재의 흔적들. 저 팽팽한 역사의 흐름으로부터 배우고 현실속의 나를 깨닫는 오늘의 풍경들이 방금 다녀갔다.

절도(絶島)의 삶을 사는 박희진 시인은 '회복기의 환자처럼 인생을 살 일이다'고 하였고나와 이 같은 겹쳐 속에서도 또 오늘에 마주한 '현실과 문화유산' 그 사이에 나는 존재한다.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절정의 날은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날은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오늘이고 미래는 다가올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벽암록〉

lhs1957@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 악마는 수행자를 끝없이 유혹한다.

"누이여, 어디로 가려고 하오?"  
"어진 이어, 번뇌를 멀리 어릴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누이여, 이 세상에는 번뇌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멀리 떠나고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차라리 나와 함께 사랑이나 나누면서 즐겁게 살시다. 늙으면 후회합니다."

"나는 이미 수없는 생애 동안 슬한 지식을 읽어왔고 또 슬한 남자와 헤어진 적이 있으므로 이젠 남자에 대하여 더 이상 미련이 없노라. 나는 모든 애욕의 고통을 뚫고 일체의 무지를 버렸노라. 번뇌망상을 없애고 깨달음을 얻어 번뇌의 불꽃을 잠재웠노라."

**악마는 수행자를 가장 두려워한다.**  
그 중에서도 번뇌망상과 이별하고자하는 수행자를 가장 두려워한다.  
악마는 갖가지 모습으로 변신하여 수행자를 유혹하고 방해하고 위협한다.

윤창화 역음/신국판 변형, 223쪽/값7,000원

근본불교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서.

### 근본불교 불교입문총서 1



진리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 석가세존은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 가르쳤다. 후대의 불교는 세존의 가르침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모한 것이다. 따라서 세존의 가르침은 모든 불교의 근본이므로 '근본불교'라고 해야한다. '원시불교'라는 명칭은 세존의 가르침을 소박하고 유치한 것으로 오인케 할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이름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중표 지음/신국판 294쪽/값8,500원

대승불교와 관련하여 소승불교비판으로부터 전개되는 불교입문서의 전통적 시각과는 달리 긍정적 시각에서 출발하지 않는 한 아비달마불교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어떠한 의미도 없다.

### 아비달마불교 불교입문총서 3



불타의 팔만사천 법문은 말 그대로 진리에 들어가는 문에 불과하다.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의 해석을 통해 불타의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불타교법에 대해 깊이 연구하여 아비달마로 일컬어지는 방대한 논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시기의 불교를 아비달마불교라 한다.

권오민 지음/신국판 367쪽/값9,000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불교신행상식 150가지

### 왕초보, 불교박사되다



이 책은 주로 신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만 간략히 설명한 책입니다. 예컨대  
· 방경, 조실스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 불전은 얼마나 놓아야 합니까?  
· 윤달과 불교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적멸보궁은 어떤 곳입니까?  
· 전생과 내생은 정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처음엔 초보였습니다.

석지현 · 일지 · 윤창화 지음 4×6판 양장/320쪽 /값 7,500원

경전속에 들어있는 불교명언 300가지

###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인색하거나 탐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욕심을 채우고자 경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하루 한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석성우 · 석지현 역음/4×6판 양장/180쪽 /값 6,000원

죽은 이를 위하여 49재를 지내는 까닭

### 영가천도와 49재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극락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인가? 49재를 지내면 정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책은 매우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계사 율주 종진 큰스님 감수/박연진 지음/4×6판 양장/216쪽 /값 6,000원